뭐하러 만들었나?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

광주경찰, 살인사건 10건 서류 검토도 못해

전담 인원 고작 2명… ‘보여주기식’ 수사 비판

2001년 9월 4일 서구 내방동 박모(38)씨 집에 괴한이 침입, 거실에 혼자 있던 박씨 아내(35)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임신부인 박씨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군데가 넘게 찔려 태아와 함께 숨졌다. 12년이 흘렀지만 경찰은 여전히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2009년 3월 19일 새벽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 교회 주차장 입구 앞 화단에 김모(49)씨가 얼굴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교회 집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김씨 얼굴은 둔기에 맞아 함몰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면식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아직 범인은 검거하지 못했다.

광주 경찰이 사회적 관심을 끈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1년 전 ‘장기미제 중요 강력사건 전담팀’을 꾸렸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10명이 넘는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차리고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고작 2명이 맡아 처리하게 하면서 사건 서류조차 검토하지 못하는 실정인데다, 아예 사건 발생 기록조차 틀린 채 보관돼 전형적인 ‘생색내기성’ 수사라는 지적이 거세다.

주요 장기 미제(살인) 사건 현황

2001년 9월 4일	서구 내방동 임신부 피살 사건
2004년 9월 14일	용봉동 여대생 알몸 테이프 피살 사건
2005년 5월 16일	광산구 동곡동 40대 남성 둔기 피살 사건
2007년 4월 17일	남구 사동 미용실 앞 길 40대 남성 피살 사건
2008년 10월 19일	동구 대인동 60대 노인 둔기 피살 사건
2009년 3월 19일	북구 중흥동 40대 회사원 둔기 피살 사건

◇주요 살인사건 검거율 0=지난해 2월 발족한 광주지방경찰청의 ‘장기미제 중요 강력사건 전담팀’은 지난 2001년 이후 발생해 여태껏 해결되지 않은 10건의 살인 사건을 대상으로 검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용봉동 여대생 알몸 테이프 피살사건(2004년 9월 14일), 중흥동 40대 회사원 둔기 피살 사건(2009년 3월 19일), 내방동 임산부 피살 사건(2001년 9월 4일), 광산구 40대 남성 둔기 피살 사건(2005년 5월 16일) 등 9건은 서류 분석도 못했다. 당연히 미제로 남아 있다.

그나마 동구 60대 노인 둔기 피살사건(2008년 10월 19일)만 지난 20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면담이 이뤄졌을 뿐이다.

◇수사 의지 의문=미제 사건 전담팀이 맡은 사건들은 당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경찰서별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십명의 인원을 투입해 사건 해결에 매달렸지만 전혀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

여대생 알몸 피살 사건의 경우 당시 경찰은 60여명의 경찰 인력을 총동원했다. 수사 기록만 500페이지 총 10권에 달하고 수사도 한 달 넘게 이뤄졌지만 실마리 마저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광주 경찰이 고작 2명의 인원만 배치해놓고 수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새로운 증거 확보는 커녕 발족한 지 1년 넘도록 대부분의 사건은 서류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사건은 아예 잘못 작성된 기록을 갖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 중흥동 모 교회 주차장 앞 40대 남성 피살 사건은 2009년 3월 19일 발생했지만 경찰은 9월 3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 2004년 1월 22일 중흥동 빌딩에서 발생한 60대 남성 둔기 피살 사건도 경찰은 1월 21일로 기록해놓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전담 인원들이 발족 이후 1년이 지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다시 처음부터 수사 기록을 분석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제 사건, 특히 살인 사건은 발생 15일이 지나면 해결이 어렵고 장기미제 사건은 2명이 12시간 넘게 매달려도 사건 자료 분석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수사력의 한계뿐 아니라 수사 의지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전담팀을 올해 안으로 정식 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당분간 장기 미제사건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학교로 간 피아노 콘서트 지난 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대촌중(교장 김명수)체육관에서 윤효간 피아노 콘서트가 열렸다. 학생,학부형 대촌동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며 환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들 여친에 강제로 키스 시도 ‘엉큼남’

서부경찰, 40대 조사

광주서부경찰은 21일 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4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17)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아들의 여자 친구인 A(여·15)양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다.

김씨는 이날 아들을 만나러 집에 온 여자친구가 귀엽다며 입을 맞추려 했다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A양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檢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CJ그룹 압수수색

재벌비리 사정 신호탄

검찰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해외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한 의혹과 관련, 21일 오전 그룹 본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을 포함해 5~6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회계 장부와 자금 관리 일일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임직원 중에서는 자금 부문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부사장급)의 자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비자금 규모는 7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실제로 제조나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가공 거래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이 설립한 해외법인들이 정상 거래로 국내 CJ그룹 측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룹 측은 허위 송장을 발행, 납품 및 원자재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CJ그룹이 회사 관계자나 위장기업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온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도 함께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5년 전 무면허 사고 처리 난감한 경찰

감사원 통보… 광주·전남 391명 면허 취소 당할 판

5년 전 낸 무면허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를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광주·전남 391명이 길게는 5년 전 무면허 교통 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됐다. 무면허 사고 운전자 중 사고를 낸 뒤 1년 이내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들은 면허 취소도 감수해야 한다.

경찰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5년 전 사고 서류 및 관련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확인을 해야 하는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단은 감사원이 최근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최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이 전산으로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에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7~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48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중 4770건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운전자 가운데 광주는 201명, 전남 191명 등 392명에 이른다.

경찰과 산하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업무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이들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도로교통법(43조) 위반 혐의를 적용,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위반한 날로부터 1년간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자칫 사고를 낸 뒤 1년 이내 다시 면허를 딴 운전자라면 면허 취소도 불가피하다.

그나마 해당 운전자들이 선뜻 경찰서를 찾아 흔쾌히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적다는 점에서 경찰도 처리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윤참 〈8821〉 김종두

중고 벤츠로 고의사고 보험금 8800만원 챙겨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중고 외제차를 사들여 고의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국외로 도주한 자금책 등 2명을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께 고의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화물차량과 충돌해 보험금 4000여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찜질방서 남성 더듬은 30대 男

쌍나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의 몸을 더듬던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6)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S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A(23)씨의 바지를 벗기고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것.

○…잠을 자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A씨가 일어나자 이를 피해 달아나던 김씨는 계단에서 굴러 현장에서 검거. /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삼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